

- 기술 기회 발굴 서비스인 InSciTe를 소개하겠습니다.
 - 정보 기술 분야의 유망 기술들입니다. 스마트폰 등장과 함께 주목 받고 있는 증강 현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 이 서비스는 '트렌드와 예측'이란 서비스로, 증강 현실과 관련된 기술들을 성숙도에 따라 배치하여 보여 주고, 기술 발전 속도를 계산하여 얼마나 빨리 성숙 단계에 접어들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키피디아와 텍스트 마이닝 플랫폼인 SINDI를 활용하여 다양한 관계들과 연관 기술들을 제공합니다.
 - 가상 현실은 발전이 더딘 기술이라 2015년에 터닝 포인트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지만, 증강 현실은 같은 해에 성숙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한다면 레드오션에 빠질 수 있겠죠.
- 그럼 InSciTe가 어떻게 이런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지금 보시는 톨팁은 계량 분석, 외부 링크, 용어 활용 주기, 연관 관계 등 많은 정보를 한번에 제공합니다. 연구자는 이 정보를 통해 InSciTe가 제공하는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셈입니다.
 - CM부터 AG는 다양한 계량 분석 결과를 보여줍니다.
 - 또한 InSciTe가 가진 매력적인 서비스들을 선별하여 기술 보고서와 기관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 링크는 현재 위키피디아 및 NDSL과 연계되어 있어, 기술에 대한 정의 및 논문, 특허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하단의 정보들은 왜 이 기술이 생명주기 상 터닝 포인트에 속하는 지, 어떻게 연관 기술들을 찾아낼 수 있었는 지를 설명해 줍니다.
- 이것은 '기술 격차' 서비스로, 국가와 기관들 간의 상대적인 기술 격차를 보여줍니다. 증강 현실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이 독보적이군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제 리포트, 기사 등을 찾아 보았는데 그 결과는 이 서비스와 동일하였습니다.
 - InSciTe는 좀 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론 검증 기능을 제공합니다. 지금 보시듯이 증강 현실과 일본과의 상관 관계는 이렇듯 복잡한 추론 과정을 거쳐 얻어지게 됩니다.
 - 기관의 경우에는 모토로라, 그라쓰 대학 등이 선두에 있습니다. 최근 구글이 모토로라가 보유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인수했는데, 대표적인 기술이 증강 현실이었습니다.
- 이것은 '로드맵' 서비스로, 특정 기관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기술들을 주로 연구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떤 기술을 연구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보여줍니다. 모토로라의 경우에는 휴대폰 제조 기술의 핵심인 메모리, 회로 등의 연구를 향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되는군요. 미래 기술과 과거 기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도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 경쟁 관계에 있는 기관들이 어떻게 연구 대상을 변화시켜왔는지, 기술 간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는 지 등을 수치화된 자질을 통하여 계산해 냅니다.
- 이것은 '경쟁자와 협력자'라는 서비스로, 특정 기관과 경쟁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기관들을 주요 기술의 관점에서 상호 비교하여 얼마나 중첩된 연구를 수행하는 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모토로라는 퀄컴이나 노키아와 유사한 연구 행태를 보입니다. 서로 공유하는 논문이나 특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은 '연관성 경로' 서비스로, 특정 기관이나 기술과 연관 관계에 있는 것들을 거리적으로 표시하여 보여줍니다.
- 이와 같이 InSciTe는 사업 기획 및 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가와 중소기업의 니즈를 분석하여 기술과 연구 주체라는 관점으로 5가지 서비스를 기획하고 구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높은 신뢰성과 효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